

남성의 가정폭력 가해 특성 및 정책 방안

황정임 선임연구위원
(02-3156-7146, imhwang@kwdimail.re.kr)

요약

-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가정폭력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발생 현황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본 글에서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여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 특성 및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분석결과 개인과 관계적 요인뿐 아니라, 성역할태도, 가정폭력 허용도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가정폭력과의 관계가 확인되었음. 이는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사회 등 여러 체계에서의 개입이 필요함.
 -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경험, 본인의 자녀에 대한 학대 경험과의 연관성이 나타나, 폭력이 3세대에 걸쳐 전이될 위험이 높음을 확인함.
 - 또한 배우자 통제가 가정폭력과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남성의 통제행동은 배우자 폭력과 자녀 학대 발생과 연관성이 강한 변수로 나타나, 향후 가정폭력 예방과 지원 정책에서 배우자의 통제 행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논의의 배경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제도도 상당히 발달되어 왔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가정폭력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발생 현황과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그간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 피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는데, 본 글에서는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원자료를 2차 분석하여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 특성 및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분석결과

분석 방법 : 가정폭력 유형 분석

- ▶ 우리나라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법상으로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 폭력 유형으로 성적 폭력을 포함하여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4유형을 조사하고 있음. 배우자 폭력에 대한 정의 유형은 각 국가와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나, 국가 간 폭력발생률을 비교하는 국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성적 폭력 2유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예, WHO, 2005).
-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4유형에 대한 분석과 국제기준에 따라 신체적/성적 폭력 2유형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함. 가해남성 분석에서는 각 폭력유형에서 여성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은 없고, 남성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해당유형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정의함.
 - 다만, 각 폭력유형에서 상호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2016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비해 축소 보고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분석사례수의 제한으로 지난 1년간 가해남성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평생 동안(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1년 이전 한 번이라도 가해행동을 한 경우) 가해만 분석함. 따라서 남성의 폭력 가해 분석에서는 평생 4유형/2유형 2개의 통계를 산출하였음.

평생 폭력 가해율

- ▶ 배우자에게 평생 동안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4유형 중 하나라도 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5.4%였으며, 신체적/성적 폭력 2유형 중 하나라도 가한 경험은 6.1%였음. 폭력 유형별 가해율을 살펴 보면, 신체적 폭력 3.8%, 정서적 폭력 8.9%, 경제적 폭력 5.3%, 성적 폭력 3.9%였음. 각 폭력유형에서 상호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2016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비해 축소보고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표1 > 배우자 폭력 가해율

(단위 : %)

구분	평생	구분	평생
가해율(4유형)	15.4	신체적 폭력	3.8
가해율(2유형)	6.1	정서적 폭력	8.9
		경제적 폭력	5.3
		성적 폭력	3.9

주: 1) 백분율은 1,272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폭력 유형의 중복 가해

- ▶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른 유형의 배우자 폭력을 중첩적으로 가했는지 살펴보았음. 4유형 기준으로 1개 유형만 가해한 남성은 가해 남성의 72%, 2개 유형은 17.3%, 3개 유형은 7.2%, 4개 유형은 3.6%였음. 2유형 기준으로는 1개 유형이 73.9%, 2개 유형은 26.1%였음. 남성 4명 중 3명이 1개 유형의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으며, 4명 중 1명은 다른 유형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가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표 2 > 중복 가해한 폭력유형의 개수

(단위 : %)

구분	평생	구분	평생
4유형	1개 유형	2유형	1개 유형
	2개 유형		73.9
	3개 유형	2개 유형	26.1
	4개 유형		

주: 1) 백분율은 평생 4유형 179명, 평생 2유형 71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배우자 폭력을 행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폭력가해 관련 요인

▶ 개인특성별 폭력가해

- 응답남성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배우자에 대한 통제행동 여부에 따라 폭력가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개인특성에 따라 평생 4유형과 2유형 기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연령이 높을수록 평생 가해 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 폭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이 고졸이하나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성보다 폭력가해 비율이 높았고, 취업여부로는 취업을 하지 않은 남성이 취업한 남성보다 폭력가해율이 높게 나타남.
-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남성과, 배우자에게 통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배우자 폭력 비율이 더 높았음.

<표 3> 개인특성별 배우자 폭력 가해

(단위 : %)

구분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구분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전체	15.4	6.1	취업여부		
만연령			취업	14.4	5.6
19-29세	0.0	0.0	미취업	22.7	9.4
30-39세	8.9	2.4	<i>p</i>	**	*
40-49세	12.4	6.2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50-64세	17.3	7.0	있음	18.7	7.2
65세 이상	23.1	7.4	없음	9.5	4.0
<i>p</i>	***	*	<i>p</i>	***	**
교육수준			배우자에 대한 통제행동		
중졸이하	23.7	10.6	있음	24.6	10.6
고졸	14.9	5.4	없음	11.1	3.9
대졸이상	12.8	5.1	<i>p</i>	***	***
<i>p</i>	***	**			

주: 1) 백분율은 1,272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가정폭력 관련 인식별 폭력 가해

- ▶ 가정폭력과 관련된 인식에 따라 배우자 폭력 가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역할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가정폭력 신고의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배우자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가정이나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의향이 없는 집단이 신고의향이 있는 집단보다 배우자 폭력 가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가정폭력 관련 인식별 배우자 폭력 가해

(단위 : %)

구분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구분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지원기관 인지		
상	22.9	8.8	0-3개	16.0	6.2
중	15.4	6.3	4-6개	14.8	5.9
하	8.8	2.7	<i>p</i>		
<i>p</i>	***	*	가정폭력 신고의향(본인가정)		
가정폭력 허용도			있음	12.8	5.2
중/상	17.9	8.3	없음	20.9	8.0
하	13.6	4.5	<i>p</i>	***	*
<i>p</i>	*	**	가정폭력 신고의향(이웃가정)		
법제도 인지			있음	14.1	4.8
0-3개	17.3	6.9	없음	19.6	10.0
4-6개	14.4	5.6	<i>p</i>	**	***
<i>p</i>					

주: 1) 백분율은 1,272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 응답남성 중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비율은 59.7%로, 성인 기혼남성 10명 중 6명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경험 55.5%, 정서적 학대 경험 33.6%, 방임 경험 6%였음.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남성의 약 과반수인 47.4%는 1개 유형의 학대를 경험했고, 46%는 2개 유형, 6.5%는 3개 유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기에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응답남성의 37%였음.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률, 즉 부모로부터 학대나 부모 간 폭력 목격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64%로,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비율과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비율을 볼 때, 학대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모 간 폭력도 목격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가정내 배우자 폭력과 자녀학대가 같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함.

<표 5>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단위 :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아동기 학대 경험률	59.7	중복 학대유형 개수	
유형별 학대 경험률		1개 유형	47.4
신체적 학대	55.5	2개 유형	46.0
정서적 학대	33.6	3개 유형	6.5
방임	6.0	부모간 폭력목격률	37.0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률	64.0

주: 1) 백분율은 1,272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중복 학대유형 개수는 아동기 학대 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3) 아동기 가정폭력은 아동기 학대, 부모간 폭력목격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 다음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의 중복 경험을 살펴본 결과, 평생 4유형을 기준으로, 응답남성의 31.6%는 둘 다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음. 45.3%는 아동기 가정폭력만, 4.4%는 배우자 폭력가해만, 18.7%는 둘 다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이를 보면 배우자에 폭력을 가한 남성의 상당 비율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단위 : %)

변수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변수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경험없음	31.6	34.5	배우자 폭력가해만	4.4	1.5
아동기 가정폭력만	45.3	57.9	둘 다 경험	18.7	6.1

주: 1) 백분율은 1,272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자녀학대

- ▶ 응답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학대 가해의 중복경험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남성의 35%가 둘 다 경험이 없었고, 42.7%는 아동기 가정폭력만 경험, 4%는 자녀학대 가해만, 18.3%는 둘 다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율을 보면,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상당수는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7>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자녀학대

(단위 : %)

변수	비율	구분	비율
둘다 경험없음	35.0	자녀학대만	4.0
아동기 가정폭력만	42.7	둘다 경험함	18.3

주: 1) 백분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19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 ▶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의 중복경험에 따라 분류한 4집단 간 가정폭력 인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둘 다 경험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가정폭력 신고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와 자녀학대 집단간 가정폭력 관련 인식 차이

(단위 : 점)

구분	경험없음	아동기만	자녀학대만	둘다경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2.15	2.30	2.29	2.39
p	***			
가정폭력 허용도	1.80	1.83	1.80	1.99
p	***			
법제도 인지	4.29	4.43	3.87	4.10
p				
지원기관 인지	3.64	3.67	3.18	3.25
p				
가정폭력 신고의향	2.72	2.81	2.74	2.24
p	***			

주: 1) 백분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19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가정폭력 신고의향은 본인가정과 이웃가정의 가정폭력 발생시의 신고의향을 모두 포함함

3) * $p<0.05$, ** $p<0.01$, *** $p<0.001$

아동기 가정폭력,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자녀학대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자녀학대 가해의 중복경험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폭력의 중복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은 평생 4유형 기준으로 31.7%, 2유형 기준으로는 33.5%였음. 응답남성 3명 중 1명은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나 배우자 폭력 가해, 자녀학대 경험이 전혀 없으며, 3명 중 2명은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9> 아동기 가정폭력,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자녀학대(1)

(단위 : %)

변수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변수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모두 경험없음	31.7	33.5	아동기 가정폭력*배우자 폭력가해만	8.2	2.7
아동기 가정폭력만	34.5	40.0	아동기 가정폭력*자녀학대만	12.0	15.2
배우자 폭력가해만	3.3	1.5	배우자 폭력가해*자녀학대만	1.3	0.1
자녀학대만	2.7	3.9	아동기 가정폭력*배우자 폭력가해*자녀학대	6.3	3.1

주: 1) 백분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19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 평생 4유형 기준으로, 1세대만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0.5%였고, 2세대만 경험한 비율은 21.4%, 3세대 모두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3%로, 2세대 이상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27.7%인 것으로 나타났음. 평생 2유형 기준으로는 2세대 경험이 18%, 3세대 경험은 3.1%로, 2세대 이상 중복경험 비율은 21.1%였음.

<표 10> 아동기 가정폭력,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자녀학대(2)

(단위 : %)

변수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변수	평생 4유형	평생 2유형
경험없음	31.7	33.5	2세대만 폭력경험	21.4	18.0
1세대만 폭력경험	40.5	45.3	3세대 모두 폭력경험	6.3	3.1

주: 1) 백분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19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3) 1세대 폭력경험은 아동기 가정폭력만, 배우자 폭력가해만, 자녀학대만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임

4) 2세대 폭력경험은 아동기 가정폭력과 배우자 폭력가해, 아동기 가정폭력과 자녀학대, 배우자 폭력가해와 자녀학대를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임

5) 3세대 폭력경험은 아동기 가정폭력, 배우자 폭력가해, 자녀학대를 모두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임

남성의 가해에서는 개인특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 집단에서,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에서, 배우자에게 통제행동을 가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가해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 기혼 남성 10명 중 6명 이상(64%)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는 결과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해남성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가정폭력 신고의향이 배우자 폭력 가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배우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서 보다 평등적인 성규범, 가정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식을 변화하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폭력 허용도를 분석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는 사회의 전반적인 폭력 허용도도 높은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의 폭력을 경험하는 사회에서 여성폭력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Jewkes et al., 2015: 1580), 가정폭력과 여성대상 폭력뿐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폭력 허용도를 낮추는 통합적인 변화와 개입 노력이 필요함.

배우자 통제가 가정폭력과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 ▶ 배우자 통제가 일어나는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억압적인 가정환경과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배우자 폭력이나 자녀학대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은 폭력적인 행동에 집중되어 왔으며, 비폭력적이지만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통제행동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매우 미흡했음.
- ▶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성의 통제행동은 배우자 폭력과 자녀학대 발생과 연관성이 강한 변수로 나타났음.